2025-11-24

HI FX Brief

신용 리스크와 12월 FOMC 불확실성 지속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유동성 위축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 지속

- AI 버블론 및 단기 자금시장 경색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함. 또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도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
- 유로화는 다시 1.15달러 초반대로 급락함. 달러화 강세와 주가 하락 등이 유로화 약세로 이어짐
-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부양책 규모와 중-일 갈등 등으로 엔화 약세폭이 확대됨. 다만,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엔화 약세 폭은 다소 축소됨
- 역외 위안화는 약보합세를 보임. 달러 강세와 중-일 강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. 내수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지가 위안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
- 호주달러도 주요국 통화 약세 흐름에 편승해 전주대비 큰 폭 하락함.
- 달러-원 환율은 다시 1,470원대에 진입함. 달러 강세 및 엔화 약세와 더불어 11월 들어 거래소기준 외국인이 약 12.3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한 영향 등이 원화 약세 폭을 확대시킴. 다만, 1,470원대에서는 정부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는 분위기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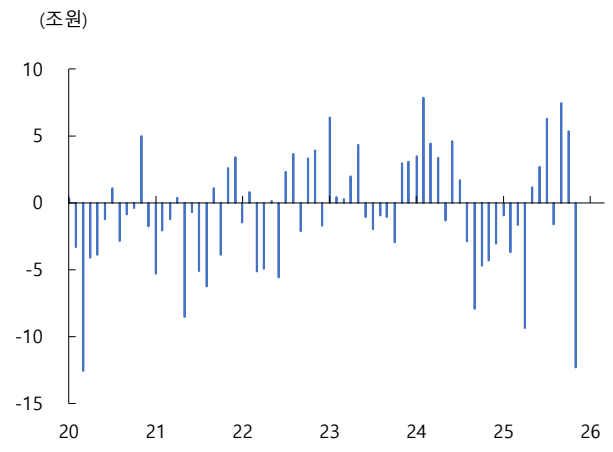
	11월 21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0.2	0.89	-7.66
유로-달러	1.151	-0.93	11.19
달러-엔	156.4	1.20	-0.50
역외 달러-위안	7.11	0.08	-3.17
호주달러-달러	0.65	-1.27	4.31
달러-원	1,471.5	1.27	-0.05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
금주: 변동성 장세 지속 속 달러-엔 환율 추이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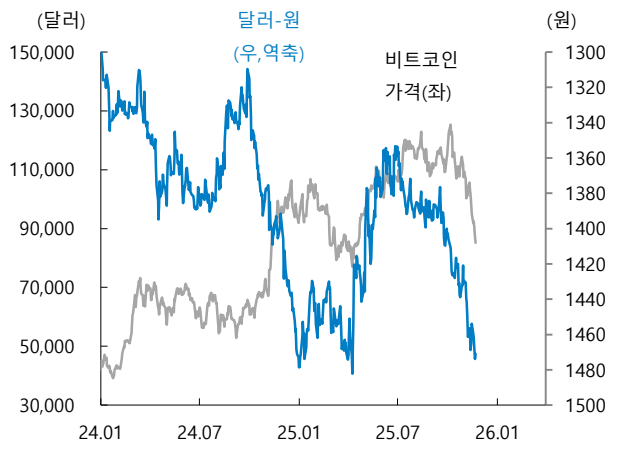
- 12월 FOMC 회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과 더불어 단기 자금시장 경색 지속 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금주 엔화 환율 추이 주목.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부양정책 재료가 소멸될 이후 달러-엔 환율 흐름은 달러화 추가 강세는 물론 달러-원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. 다카이치 랠리 지속으로 엔화 약세 폭이 추가로 확대될지 아니면 부양정책 재료 소멸로 엔화가 강세 전환할지를 주시해야 할 시점임
- 달러-원 환율도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임. 엔화 추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과 1,470원대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임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50~1,490원으로 전망함

그림1. 거래소기준 11월(1~21일) 외국인 순매도액은 20년 3월 (12.6조원)이후 최대 규모임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유동성 위축과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달러-원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